

## 82' 한국마칼루 원정대원들의 성격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정신과학교실

이 근 후 · 박 영 숙

= ABSTRACT =

### A Personality Study of the 82 Korean Makalu Expedition Members

Kun Hoo Rhee, M. D., Young Sook Park, M. D.

*Department of Neuro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Ewha Womans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purposed to evaluate the common personality traits of the 82 Korean Makalu Expedition members by the psychological tests.

The main psychological tests used to this study were 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 Rorschach test, and Korean Wechsler Intelligence test.

The results obtained were as follow ;

- 1) The resistance toward psychological evaluations was unexpectedly intense.
- 2) As a whole the level of intelligence ability was high : very superior level with 6 subjects and bright normal level with 2 subjects.
- 3) The basic response style was generally introversive.
- 4) The considerable resources were not well organized.
- 5) The affective experiences and expressions were insufficiently organized.
- 6) The intense dependent need of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was inhibited so that the intimate interpersonal relationship was avoided.
- 7) The self evaluation was generally low because of conflict with the ideal self image and real self image.
- 8) The subjects consciously belonged to normal group but latently showed underlying depression and inner conflicts.

### 서 론

정신과에서 심리학적 평가는 정신장애자의 역동적 기

술적 이해를 위하여 사용되어져 왔었다. 정신장애자의 이해를 위해서는 사고, 지각, 기억과 같은 인지 과정, 경험과 정서, 중요한 내부갈등, 주된 방어기전, 반복되는 대인관계, 스트레스에 대한 취약성과 자원 등의 중

요한 요인들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가 요구된다<sup>1)</sup>. 이에 따라 심리학적 평가는 심리적 기능의 다른 측면과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검사바테리에 의해 시행되어져 왔다.

그러나 검사바테리의 효율성에 관한 엄격한 실험 연구들은 검사바테리의 효율성을 증명하는데 실패하였거나<sup>2) 3)</sup>,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보고하였다<sup>4) 5)</sup>. 또한 심리학적 평가에서 무엇보다도 중요시 되어온 임상진단과 성격의 역동진단의 비타당성이 지적되었다<sup>6) 7) 8) 9)</sup>.

이와같은 부정적인 연구결과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신병리를 진단하는 심리학적 평가의 중요성이나 효율성이 임상장면에서 문제시되거나 배척된 일은 없었다<sup>10)</sup>. Rapaport는<sup>11)</sup> 심리진단검사에 있어서 개인의 성격에 대한 보다 완전한 이해를 제공한다는 점과 개인간 비교가 가능하다는 점을 장점으로 지적하였다. 이와같은 심리학적 평가의 객관성은 정신의학적 평가에서 Spitzer 등(1968)<sup>12)</sup>, Wing 등(1973)<sup>13)</sup>에 의해 객관적 평가가 주장되고 정신의학적 평가의 검사회경향이 있음에 비추어 볼때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심리학적 평가는 일반적 심리진단과 특수진단으로 구별된다<sup>14)</sup>. 일반적 진단접근은 개인의 전체 인격에 대한 종합적 평가로서 검사바테리에 의해 실시된다. 특수진단접근은 결정과정을 도울기 위한 분류상태에 대한 평가로서, 예를 들면 치료에의 예후, 자살의 예견 등과 특정한 질문에 해답을 제공한다.

이와같은 심리학적 평가는 정신장애의 진단뿐만 아니라 교육, 산업현장에서 개인에 대한 정확한 행동 예견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결정을 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sup>15)</sup>. 이를 위해서는 평가되는 내용이 관찰가능한 행동에서 직접 평가될 수 있어야 하며, 행동보다 탐색적인 추론이 요구되는 성격특성에 따른 평가는 배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효율적인 결정을 위한 행동진단도 중요하지만, 개인에게나 집단에게 궁극적인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개인의 정신건강의 평가역시 중요하며 이는 개인의 성격진단을 내리는 일반적인 심리학적 평가를 요구한다.

성격은 정상적으로 표명되거나 간에 논리적인 연속성이 있으며, 행동과 성격발달의 기본적인 역동적 원리는 동일하다<sup>16)</sup>. 따라서 심리진단검사는 정신장애자의 성격에 관한 객관적인 통합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상인의 성격에 관한 객관적인 통합적 정보를 제공하며 행동을 예견한다. 최근 정상인의 성격평가에 심리진단검사들이 사용되고 있다<sup>17) 18)</sup>.

본 논문은 심리진단검사와 행동관찰법을 사용하여 성

격특성과 스트레스(stress)에 대한 반응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82 한국 마칼루 학술원정대」에 참여한 등반대원들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검사에 대한 피검자들의 저항이 예상외로 매우 강하여 원래의 설계와 같이 사전, 사후검사 실시가 어려웠고 원정전에 실시된 사전검사의 결과 역시 매우 제한되었고 스트레스반응에 대한 행동관찰은 평가되어 않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심리진단검사를 사용하여 개인사별 성격을 기술하고, 개인간 비교에 의해 성격특성에 있어서의 공통점을 발견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 연구 방법

본 논문의 검사대상은 「82 한국 마칼루 학술원정대」에 참여한 대원 10명 전원이었으며 검사종류는 한국웨슬러 지능검사(KWIS : korean wechsler Intelligence Scale), 다면적 인성검사(MMPI : 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 료사검사(Rorschach test)가 주요 검사였으며, 자아실현검사, 그림좌절검사, 인물화검사, 주제통각검사, 벤다-게슈탈트검사(BGT : Bender Gestalt Test)가 보조적 검사로 사용되었다.

MMPI는 한국개정판 방식으로 실시, 채점, 해석되었다<sup>24)</sup>.

KWIS는 표준방식에 따라 실시, 채점, 해석되었고<sup>25)</sup>. 그외에 불안, 우울, 사고장애, 편집증(paranoia)의 임상증상을 각기 척도화하였는데, Schafer(1948)<sup>26)</sup>, Rapaport 등(1946)<sup>27)</sup>을 참고로 하여 선정하였다. 불안중척도는 표1에서와 같이 10개 항목이며, 우울증 10 항목, 사고장애 8항목, 편집증 12항목이다. 표2는 표1의 항목의 기호화를 나타내고 있다.

각 척도별 채점방식은 이탈점수방식(scatter score)에 따라 변인간 소검사점수 1.5-2.9점이 차이 나면 1점, 2.9점이상은 2점으로 채점하고 척도별 총점수 10점이 상일때 의미있는 수준으로 하였다.

로사검사는 한국정상인의 Rorschach 반응<sup>28)</sup>을 기준으로 하여 개인검사반응을 평가하였고 Klopfer 방식<sup>29)</sup>에 따라 실시, 채점, 해석되었다.

정보제공 원천으로 검사중 행동관찰, 개인면담은 이용되지 않았고 검사자료에 의존해서만 평가되었다.

## 결과 및 해석

개인사별 심리진단검사 결과 및 심리학적 평가는 다음과 같다(표 3-5).

표 1. KWIS의 증상별 특성 항목

척도	척도 내용					
불안증	Ds < V Dy < V	Ds < I Dy < Px	Ds < A Pa < Px	A < V Amis	A < Vx Pc < V	
우울증	I < V Pc < V	S < V Pc < Px	Bd < V Px < Vx	Bd < Px Px < A	Ds < Px Ds < V	
사고장애	Pc < Bd ILL: V	C < V S < V	C < Vx Px < Vx	S < Vx	FailE	
편집증	V < C Pa < V	Vx < C Pa < Px	V < A Ds < A	Px < Bd Pv < Pc	V < S Pv < Pc	Vx < S V < Bd

표 2. KWIS 변인의 기호화

I	상식	Dy	바꿔쓰기	Fail	(쉬운 문항 실패)
C	이해	Pc	빠진곳 찾기	Amis	(쉬운 산수 문항 실패)
A	산수	Bd	토막짜기	ILL, A.	(비논리적 언어표현)
S	공통성	Pa	차례 맞추기		
Ds	숫자	Px	동작성 평균 평가치		
V	어휘				
Vx	언어성 평균 평가치				

표 3. KWIS의 언어지능, 동작지능, 지능지수

지능 사례	언어지능	동작지능	전체지능
1	140	124	135
2	130	131	132
3	129	134	133
4	130	122	128
5	131	128	132
6	136	125	133
7	121	110	118
8	112	112	113
9	105	116	110
10	-	-	-

사례 1

기본적인 반응방식에 있어서 내적 경험이 주로 일어나는 내향성이 명백히 강하거나,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활발히 일어나는 외향성이 명백히 강하지 않으며, 내향성반응과 외향성반응사이에 융통성이 있으나 긴장상태

에서는 내향적 반응을 하는 경향이 다소 높다.

최우수 수준의 지능(전체지능 IQ 135)을 지니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높은 수준의 재능의 활용, 창의성이 기대되지만 충분히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며 재능에 상응되는 높은 성취동기를 지니고 있지 않다. 지나치게 보수적이거나 엄격한 가치체계를 지니고 있지는 않으나 조직화되고 쉽게 이용될수 있는 내적 자원이 충분히 발달되어 있지 않다. 이와같은 재능과 성취동기, 내적자원 사이의 불균형은 정서 억압에서 그 원인이 추적될수 있다.

정서적으로 위축된 상태에 있으며, 정서표현을 억압하는 경향, 방어하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표현은 억제되지만 내적으로 보다 미성숙한 대인관계, 의존욕구, 애정욕구가 강한 상태에 있으며 상당한 충동성이 있어 비조직적 행동, 즉 우발적인 행동으로 표현되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 이와같은 욕구는 억제되고 내적 긴장, 고통으로 경험되며, 대인관계에서 조직적이고 직접적인 욕구의 실현은 제한된다. 따라서 대인관계 형성 능력과 관심은 있으나 대인관계를 회피하고 철수하는 경향이 일반적으로 일어난다. 대인관계는 소망되

표 4. MMPI 척도별 T점수

척도 사례	L	F	K	Hs	D	Hy	Pd	Mf	Pa	Pt	Sc	Ma	Si
1	43	45	73	46	41	54	66	59	47	43	51	57	36
2	47	37	62	40	32	45	51	43	42	36	41	46	41
3	39	67	42	55	50	56	55	49	73	54	55	65	46
5	66	47	66	46	50	39	42	49	53	42	38	39	53
6	55	33	62	40	37	31	38	29	35	40	31	39	45
7	47	39	62	42	43	48	61	55	42	56	51	65	45
8	35	41	55	38	45	37	44	41	58	47	42	55	56

\* 사례 4, 9, 10, 은 MMPI가 완성되지 않았음.

표 5. 로샤반응 결과

반응 사례	TR	W %	F %	F+%	A %	H	M	FM+m	EB	무색채반응합	Rej
1	25	40	56	84	56	2	2	2	3.5	5	-
2	42	14.2	80.9	73.8	57.1	9	3	2	4	1	-
3	18	50	27.7	83.4	38.8	5	2	2	2	6	-
4	27	37.7	40.7	70.3	37.7	7	3	3	6	7	-
5	8	78.0	12.5	87.5	50.0	2	3	4	3	1	3
6	10	40	40	92.6	80	1	2	2	4.5	1	1
7	7	60	50	60	40	3	1	3	1	1	-
8	10	44	50	40	50	2	1	1	3	-	1
9	6	33	50	100	66	1	1	1	-	-	5
10	6	33	83	100	16	1	-	-	1.5	-	5

표 6. 저항집단과 한국정상인집단 로샤반응 비교

반응내용	저항집단	정상인 집단
전체 반응수 감소	TR=10	TR=15.18
형태반응 비율증가	F%=50	F%=34.12
전체 형태수준증가	X +% =80	
동물반응 증가	A+Ad %=50	45.88
평범반응 증가	P=7	
서부카드수의 증가	Rej· =2.36	Rej· =0.76

는 성질과는 다른, 방어하고 경제하는 성질을 띄게 된다.

자아상은 수동적이고 약하고 비공격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이상적 자아상은 권위적이고 전통적인 남성상으로 추구된다. 권위인물과의 관계는 거리감, 적대

감, 두려움이 있으며, 이에 따라 남성적 자아상에 대한 부적감을 느끼고 있다. 이성관계 갈등이 있으며 일시적이고 충동적이며 적절하지 않은 이성관계는 이루어지지만 지속적인 이성관계는 회피되며 성취욕감도 시사된다.

강한 부정방어(denial)가 사용되며 현재의 현실검증 능력은 적절하며 내재적인 우울정서가 있다. 강한 긴장 상태에서 일시적인 퇴행, 현실검증 혼란의 가능성이 시사된다.

사례 2

지적 능력은 최우수 수준(전체지능 IQ 132)까지 이르고 있으나 재능의 효율적 성취가 제한되고 있다. 높은 재능을 지니고 있으나 재능을 충분히 활용하려는 성취동기가 매우 낮으며 실질적, 구체적 측면에만 관심을 기울이며 상황의 세부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는 심리적 보수적 경향을 나타내며 도달할 수 있는 최  
저의 능력범위만을 고수하는 경향으로 자발적인 에너지  
가 낮고 조직화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실질적인 재능  
의 발휘는 갖추어진 재능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기본적인 반응방식은 내향적 반응경향성이 높다. 그  
리고 정서역압이 매우 강한 수준에 있으며 강박적 방어  
(obsessive defense)가 강하게 사용되며 주지방어(in-  
tellectualization)가 주된 방어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내적 긴장감이나 충동성의 정서 위급감은 느껴지지 않  
는다.

이와같은 강한 방어의 사용은 현재 표면화되고 있지  
않는 내재적 불안을 시사해주고 있다.

대인관계의 형성능력과 관심은 적절하며 표면적으로  
는 개방적이지만 실질적인 대인관계는 억압적이고 경계  
적이며 과민한 의심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개방적이지  
못하다.

자아상은 성숙하고 공격적인 남성상으로 추구되며 그  
러나 현실적인 자아상은 수동적이고 비공격적이며 약  
한 자아상으로 지각되고 있다. 이성관계에서 의존성이  
있으며 모성상에 대한 의존욕구가 관계 형성의 시도는  
회피된다.

이와같이 전반적으로 강한 강박적 방어가 사용되며  
효율적으로 방어가 유지되고 있으나 시사되는 점은 남  
성적 자아상의 부적감, 내재적 불안, 이성관계 회피경  
향성이다. 내재적 우울정서가 심하지는 않으나 잠재되  
어 있다.

현실검증능력은 적절한 범위에 있으며 스트레스상  
황에서 강박적 방어의 강화가 시사된다.

#### 사례 3

지능수준은 최우수 수준(전체지능 IQ 133)에 있다.

기본적인 반응방식은 내향적이거나 외향적인 융통성  
이 있으나 긴장상태가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면 내향적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조직적인 내적자원은 지능  
수준에 비해 낮으며 이와같은 내적 자원을 압도하는 비  
조직적인 내적 자원이 높다. 이와같은 내부 충동성에 대  
한 수용은 있으나 충동이 적절히 방출 통제되지 못하고  
강한 내적긴장으로 남아있다. 이와같은 내적 충동성은  
보다 미성숙한 대인관계 애정욕구인데 대인관계에서  
적절히 표현되거나 충족되지 못하고 내적 고통으로 경험  
된다. 이는 상당한 불안을 유발할 수 있는 강도에 있으  
며 자아통합의 붕괴 가능성도 시사해주고 있다. 그러나  
외부세계에 대한 반응에 혼란을 일으키는 내부자극요  
소가 보다 강하게 존재하고 있다.

실질적인 대인관계 형성은 집착과 지나친 관심이 있

으나 적절하고 친밀한 관계형성은 제한된다. 대인관계  
가 회피되고 강한 부정방어가 사용되므로 현실철수 경  
향성이 있다. 이는 낮은 자아평가를 시사한다.

자아상은 의존적이고 수동적이고 약한 현실적 자아가  
지각되고 있으며 이상적 자아상은 신체적으로 특히 힘  
이 강하고 남성적 자아가 추구된다. 보호적이고 모성적  
인 이성에 대한 집착이 시사된다.

주된 방어기제로 부정방어가 강한 수준에서 시도되고  
있으나 내부 갈등이 의식화되고 있으며 대인관계 강한  
의존욕구, 파괴적인 공격적 충동욕구와 이에 대한 두려  
움이 자각되고 있다. 현재 방어의 시도는 강하지만 불  
안이 의식화되고, 방어효과가 적절하지 못하며 때로는 부  
적절한 정서반응과 현실철수 경향성이 있다.

현재 현실검증능력은 적절한 범위에 있으며 내재적으  
로 불안정상태에 있다.

#### 사례 4

지적 능력은 최우수 수준(전체지능 IQ 128)에 있다.  
기본반응방식은 내향적이거나 외향적이거나 융통성  
이 있다. 내부 자원은 조직적 자원도 상당히 높고 유용  
하게 이용되지만 비조직적 자원이 충분히 조직화되지  
못하고 내부 긴장으로 남아있다. 비조직적인 충동적 부  
분에 대한 자아수용은 이루어지고 있다.

내부 비조직적 자원은 보다 미성숙한 대인관계 의존  
욕구, 애정에 대한 소망과 연관된다.

대인관계는 타인에 대한 관심과 집착을 보이지만 실  
제적인 관계형성의 억제와 방어가 강하여 적절한 대인  
관계의 실질적인 거리감은 낮은 자아평가를 시사하며  
대인관계 경계를 나타낸다.

그러나 내적 긴장이 높고 대인관계의 제한은 있으나  
성취기대가 높고 충동성에 대한 자기수용이 있으면서  
대인관계에서의 충족의 억제는 작업에 대한 에너지를  
강화시키는 동기, 일에 대한 집착과 높은 성취기대수  
준이 예상된다.

자아상은 남성적인 강한 특히 신체적으로 강한 이상  
적 자아에 집착하며 자아상에 대한 부적감이 잠재되어  
있다.

공격적 충동성은 외부로 표현되고 투사되며 현실검  
증능력은 적절한 수준에 있다.

조직적 내부 자원, 충동성에 대한 자아수용, 성취에  
의 동기, 적절한 현실검증능력이 있으나 보다 깊은  
수준의 내적갈등의 방어의 가능성이 시사되며 작업으  
로의 승화와 더불어 현실철수 경향성이 시사되고 있다.

다음에 제시되는 사례 5-10은 검사에 대한 저항이  
강하고 검사 방어가 높아 반응이 제한되고 의미있는 해

석이 내려지기 어려웠다. 이 사례들의 반응특징을 조사 검사에서 정상집단과<sup>28)</sup> 비교해보면 표 6과 같다.

이와같이 반응량, 반응결정인의 특징에 따라 반응내용이 단순하였고 Klopfer방식의 정상집단의 반응과 비교하면 전체반응 W%가 증가하였다 (W%: 50) > 20 - 30). 이와같은 반응특징들은 검사에 대한 경제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사례 5, 7, 9, 10,에서는 저항에 대한 언어적 표현이 표면화되었으나 사례 6, 8에서는 저항 표현이 없는 간접적인 저항을 나타내었다. 이와같은 결과는 개인의 독특한 지각을 나타내지 않으려는 회피이며 지나치게 상식적인 지각에만 반응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의 독특한 성격 표명은 명백히 제한되고 있으며 제한된 범위에서 성격특징의 기술이 이루어진다.

#### 사례 5

지능은 최우수 수준 (전체지능 IQ 132)이며 현재 상당한 방어적 위축상태에 있다.

기본적 반응방식은 내향성이며 내적 상상활동이 높으며 긴장상황에서 문제해결의 행동 모색보다 내적 공상 세계로 도피하는 경향성이 있다.

정서반응은 상당히 위축되어 있으나 내적인 충동적 욕구가 위축상태에 있으며 내적 긴장상태가 보다 유발되기 쉽다. 이에 대한 반응은 내부 세계로의 현실철수가 일어난다.

외부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관심이 결여되지만 모호한 상황에 도전하여 내적 자원을 성장시키려는 욕구가 있으며 상당한 내부자원이 있다. 그러나 내부 자원이 유용하게 동원되지 못하고 억압되는 경향이 있다.

의식수준의 갈등은 권위상에 대한 갈등과 양가적인 자아상이 시사되며 현실회피 경향성 대인관계 회피 경향성이 의식되고 있다. 의식적 지각과 함께 직면, 해결에 대한 동기는 표현된다. 이와같은 직면, 도전에 대한 동기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억압, 위축경향이 높다.

#### 사례 6

지능수준은 최우수 수준 (전체지능 IQ 133)이다.

기본반응방식이 내향적이거나 외향적인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으며 지나친 정서위축이나 정서 변동성은 나타나지 않는다. 지나치게 현실적인 경향성만을 나타내므로 개인의 독특성의 결여가 시사되기도 하며 대인관계의 회피가 시사된다. 그러나 이와같은 경향성이 검사에 대한 방어적 위축을 나타내는지 원래의 성격특성을 나타내는지 구별되기 어렵다.

#### 사례 7

지능수준은 보통 상위수준 (전체지능 IQ 118)이다.

재능에 비해 성취기대 수준은 높다.

기본반응방식은 내향적 경향성을 나타내며 정서표현의 위축이 강한 상태이다. 정서표현의 위축은 검사에 대한 방어때문에 나타날수 있지만 원래 정서표현의 억압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조직적인 내적 자원은 억제되고 불충분한 상태에 있다. 비조직적인 내부자원은 보다 강하며 직접적인 방출이 억제되고 내적 긴장상태가 높다.

대인관계에 대한 과도한 집착, 관심은 자아평가의 부적합을 시사해주며 실질적인 대인관계는 위축되고 회피되는 경향이 있다.

부적절한 자아상이 시사되는데 무기력하고 부조화되고 손상된 자아상이 표현되고 있으며 억제적인 수동-공격적 자아를 나타내고 있다.

현실검증능력은 다소 부적절하며 특히 긴장상황에서 자아 퇴행 경향성과 현실의곡의 가능성이 시사된다. 우울정서가 잠재되어 있다.

#### 사례 8

지능수준은 보통 상위수준 (전체지능 IQ 113)이다. 검사에 대한 방어가 매우 강하여 성격특성에 대한 기술의 신뢰도는 낮다.

기본반응방식은 외향적 경향성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으며 조직적 내부 자원에 비해 비조직적인 내부 자원이 높다.

대인관계는 개방적이며 회피나 철수경향없는 대인관계 형성이 시사된다.

자아상은 지나치게 수동적이거나 약하거나 손상된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지 않으며 비교적 도전적이지만 공격적인, 파괴적인 요소는 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실검증능력은 적절한 수준에 있다.

#### 사례 9

매우 심한 검사 저항과 방어가 있었다. 지능수준은 보통수준 (전체지능 IQ 110)이다. 제한된 평범한 지각만이 표현되고 있으며 현재 검사상에서 성격특성은 전혀 표현되고 있지 않다. 이와같은 강한 방어는 강한 갈등의 결과일수도 있음을 시사해주는 심한 방어적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 사례 10

매우 심한 검사 방어가 있었으나 부분적인 내부 갈등이 시사된다. 자아상의 부적감, 남성적 자아상의 부적감과 성적 갈등이 시사되고 대인관계와 현실접촉의 위축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상과 같은 개인사례별 심리학적 평가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1. 심리진단검사에 대한 저항이 높다.
2. 최우수 수준의 지능이 6사례, 보통 상위수준이 2사례로서 대체로 높은 지능수준을 지니고 있다.
3. 지능수준에 비해 내적 자원이 비조직화되어 있다.
4. 정서위축경향이 높다. 이는 5사례에서는 방어에 의한 위축이었으나 현상적으로 정서 위축상태에 있었다.
5. 기본반응에서 내향적반응이 높다.
6. 대인관계에서 미성숙한 의존성이 높으며 이성관계에서도 의존욕구가 높았다.
7. 내적인 의존욕구는 높으나 대인관계 회피가 일어나며 이성관계 회피 경향성이 있었다.
8. 자아상의 부적감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며 공격적인 강한 이상적 자아상과 수동적이고 약한, 비공격적인 자아상이 있었다.
9. 표면적 의식수준에서 정신장애는 없었으나 내부 갈등이 있고 잠재적 우울정서가 있었다.
10. 내부갈등이 형태수준은 우수하나 작화반응(fabulged response)으로 평가되는 로샤반응내용으로 표현되었다.

## 고 찰

지금까지 「82 한국마찰루 학술원정」에 참여하였던 원정대원들의 심리학적 평가결과를 기술하고 그 공통점을 추적해보았다. 이 연구는 앞서 밝힌바와 같이 성격특성과 스트레스반응과의 관계 연구를 시도하였으나 피검사자들의 검사에 대한 저항이 강하여, 시도되었던 심리학적 평가의 결과만이 요약된 것으로써, 이러한 검사에 대한 방어는 이 연구결과의 제한점을 명시하며 또한 정상인의 심리학적 평가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문제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와같은 제한점이 있으나 실시된 평가에서 의미있는 성격특징의 공통점을 발견하고 이와같은 성격특징이 비교적 타인과의 경쟁, 공격적 관계 보다는 개인 자신과의 경쟁이 일어나는 등반 운동을 선택하는 동기와 상관성이 있는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Maslow<sup>30)</sup>는 운동적 성취는 고도의 절정감, 성취의 경험을 가져다 주는 절정 경험(peak-experience)에 속한다고 하였다. 절정경험은 존재의식(B-cognition)을 통하여 주체성의 목표가 달성되며, 자아실현, 자율성, 개별화가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이는 단순한 정서적, 인지적 상태는 아니며 절정경험을 통하여 얻어진 자아실현은 순간적인수 있으나 성격의 변화를 동반한다고 하였

다.

Pierce<sup>31)</sup>는 운동활동이 인간의 고유한 집단활동에의 참여이며 운동활동이 제공하는 심리적 의미가 다양하다고 지적하였다. 인간은 자살에의 경향성, 파괴적인 공격성으로 나타나는 파괴성이 있는 동시에 유일하게 놀이(entertainment)에의 욕구가 있으며 단체경기에 참여한다. 운동이나 놀이 수행은 심리적 신체적 이익을 제공하는데, 통달(mastery)의 자각, 독립과 증가된 사회성, 긍정적인 송환(feedback), 작업 생산성의 증가뿐 아니라 신체 통합감과 효율적 기능에 대한 자각을 가져다 준다. 운동활동의 정신역동성은 개인에 따라 밝혀져야 하며 운동활동에 참여하는 개인들의 이유는 광범한 연속선을 이루며 다차원적이다<sup>32)</sup>. 운동활동의 정신역동성은 일반적으로, 신체활동을 통한 건강이 촉진되며, 밀접한 사회적 집단이 형성되므로 사회적 경험이 증가하게 되며, 심미적 경험을 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좌절과 긴장이 발산되는 감정의 정화(catharsis)가 이루어지며, 충족을 연기하는 과정에서 자아의 한계와 능력에 대한 인식이 생겨지므로 이러한 성취에의 추구라고 볼수있다. 이러한 정신역동성의 궁극적인 의미는 장애물과 좌절을 극복하도록 하며 생존에서 요구되는 끊임 없는 적응의 연습을 허용하여 주는 의미가 있다.

이와같이 운동활동에의 참여는 보다 높은 수준의 자아실현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좌절을 극복하려는 한 적응방식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보다 원초적인 감정들을 비파괴적으로 승화된 수준에서 발산하도록 하여 준다고 볼 수 있다.

Freud<sup>33)</sup>는 아동들의 놀이(play)가 현실에서 가져다 주는 어머니와의 분리를 통달하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성숙한 작업을 유도하는 단계로서 놀이의 의미가 강조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놀이는 현실의 수동성을 능동적으로 극복하려는 시도로서 인식되고 있으며 고통스런 현실상황을 다루고 현실에서의 역할과 다른 역할을 하므로써 성공적인 역할을 학습할 수 있게 되며, 항상 새로운 시작과 성공의 가능성이 놀이에서는 열려 있으므로 현실의 제한성을 극복하는 한 방법으로 사용되어진다<sup>34)</sup>.

앞서 지적된 본 연구 대상자들의 공통적 심리특성은 한국정상인집단의 심리진단검사 반응과 비교하여 의미 있게 차이있는 반응을 기초로하여 해석되어진 것이다. 공통적 심리특성은 높은 수준의 지능, 비조직적 내적자원, 대인관계에서 욕구와 행동의 불일치, 자아부적감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심리적 특성의 표면적 상태는 정상범위에 있으나 내적인 갈등이 있는 상태였다.

Cox<sup>35)</sup>가 지적하였듯이 가장 최고의 정서적 성취가

## 결 론

이루어진 심리적 성숙상태에서도 갈등과 고통으로 벗어나기가 어렵다면, 이 집단이 보여주는 내적 갈등은 정상인집단에 비해 의미있는 차이반응의 결과였지만 성숙한 속단이 내려져서는 안되는 심리적 특성으로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 Erikson<sup>36)</sup> 역시 갈등과 위기, 긴장의 관점에서 인간의 심리적 정상을 논하면서 “인간은 심리적으로 생존상태에 있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갈등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 집단의 심리특성의 갈등의 성질 그 자체를 중요시하기 보다 이와같은 갈등이 자아실현 과정의 통로를 통하여 해결이 시도되고 있는 적응행동이라는 점에 의미를 두고자 한다.

심리적 특성과 행동 평가는 생리-심리-사회적 변인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는 그 정상성이나 성숙성, 비정상성의 판단이 어렵다.<sup>35)</sup> 더욱이 Toffler 등<sup>37)</sup> 에 의하면 현재의 급격한 변화는 합리적 사고에 혼란을 일으키며 지나친 자극과 “미래 충격”은 사회의 혼란된 붕괴, 약물의 과잉 사용, 신비주의 상승, 폭력, 허무주의, 병적인 무감동과 철수를 초래하며, 결정에 대한 긴장과 감각적, 인지적 자극의 지나침은 개인과 사회의 부적응을 일으킨다. 한<sup>38)</sup>은 한국과 같이 변화의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고 사회구조의 문화, 심각한 단절 현상을 유발시키는 사회에서는 자아중심이 잠긴 정체의식, 개혁적인간상과 질서지향적 인간상의 조화가 요구된다고 하였다. 정상적 행동과 심리적 특성이 개인, 가족, 집단, 사회의 문맥에 따라 기술되어야 함을 고려할때 정상과 성숙, 비정상의 판단은 상당히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정신의학은 비정상적 행동을 인식하는데만 훈련이 되며 정상적 행동과 성숙한 행동을 인식하는데는 소홀하였다고 지적되어져 왔었다.<sup>39)</sup> 최근에야 정상진강이 긍정적인 입장에서 다루어지며, 적응행동, 건강한 방어기전을 강조하고 그 자체의 용어는 정상적 행동이 기술되도록 신중히 시도되고 있다.

이와같은 점이 고려될때 본 연구는 정상적 생활이 유지되는 정상인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를 시도하여 내재적 갈등의 자아실현적 행동 추구가 운동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힐수 있었다. 그러나 앞서 지적된 바와 같이 검사에 대한 저항이 매우 높아 결과의 제한점이 있었으며, 정상인의 경우, 정상장애자에 비해 일반적으로 억압방어(repression)가 유지되므로 검사가 실시되는 분위기에 따라 보다 강한 저항이 일어날수 있으므로 정상인집단에 심리진단검사 실시에서 저항의 문제가 잘 해결되어야 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심리진단검사를 사용하여 82마달 루한 학술원정대에 참여하였던 원정대원의 심리특성에 대한 평가결과 다음과 같은 심리특성이 공통점으로 추적되었다.

1. 심리진단검사에 대한 저항이 높은 심리적 상태에 있었다.
2. 지적 능력은 최우수 수준 6사례로써 높은수준을 나타내었다.
3. 주어진 재능에 비해 조직적 내적자원 활용은 낮았고 비조직적 내적 자원이 높았다.
4. 정서의 위축 경향이 있었고 기본반응방식은 높았다.
5. 대인관계에서 내적욕구는 의존적욕구가 보다 미성숙한 수준에서 강하였으나 대인관계 형성은 회피되었다.
6. 자아상의 부적감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며 이상적 자아상과 현실적 자아상의 불일치가 높았다.
7. 이와같은 심리특성의 표면적 상태는 정상범위에 속하였으며 내재적 갈등으로 잠재된 상태에 있었다.
8. 운동활동은 내재적 갈등에 대한 자아실현적 수단으로 동기화되고 있다.

## — References —

- 1) Nicholi, A. M. : The Harvard Guide to Modern psychiatry. 41 -58,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8.
- 2) Kostlan, A. : A Method for the study of psychodiagnosis. J. Consulting Psychology. 18 : 87 -88, 1959.
- 3) Little, K. B. and Shneidman, E. S. : Congruencies among interpretations of psychological test and anamnestic data. Psychological Monographs, 73, Wholo No. 476, 1959.
- 4) Meehl, P. E. : Structural and projective test : Some common problems in validation. J. Projective technique, 23 : 268 -272, 1959.
- 5) Murstein, B. I. (ed) : Handbook of projective technique. 85 -87, New York, Basic Books, 1965.
- 6) Garfield, S. L. : Clinical psychology, the study



- of personality and behavior, 60-76, Chicago, Aldine, 1974.
- 7) Nunnally, J. C. : Introduction to psychological Measurement, 386-414, New York, McGraw-Hill, 1970.
  - 8) Mischell, W. : On the future of personality Measurement, American Psychologist, 32 : 246-264, 1977.
  - 9) Albee, G. W. : The uncertain future of clinical psychology, American Psychologist, 25 : 1071-1080, 1970.
  - 10) 원호택 : 심리진단검사 배터리의 타당도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7, 1980.
  - 11) Rapaport, D. : The status of psychological testing, J. Consulting psychology, 12, 1-3, 1948.
  - 12) Spitzer, R. L., Endicott, J. Mesnikoff, A. M. and Cohen, G. M. : Psychiatric Evaluation Form, 5-8, New York, Biometric research, 1968.
  - 13) Wing, J. K., Cooper, J. E. and Sartorius, N. : The measurement of classification of psychiatric symptoms, 53-7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4.
  - 14) Wolman, B. B. (ed) : Clinical diagnosis of Mental disorders, A Handbook, 97-146, New York, Plenum, 1978.
  - 15) Sines, J. O. : Actuarial Methods in Personality Assessment, 133-194, New York, Academic press, 1966.
  - 16) Kolb, L. C. and Brodie, H. K. H., : Modern Clinical Psychiatry, 58-111, Philadelphia, W. B. Saunders, 1982.
  - 17) 임현택 : 근로청소년의 사회정신학적연구, 신경정신의학, 18 : 3, 276-289, 1979.
  - 18) 신석철 : 청소년 성격에 관한 추계학적 일연구, 신경정신의학, 17 : 3, 271-281, 1978.
  - 19) 이시형 · 이명자 · 조호철 : 제대, 복학생의 대학적응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16 : 1, 95-102, 1977.
  - 20) 한상엽 : 육군장병에 대한 코넬의 학지수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8 : 1, 51-68, 1969.
  - 21) 오석환 : CMI 에 의한 고교생에 관한 정신건강연구, 신경정신의학, 16 : 1, 57-62, 1967.
  - 22) 배대균 : 한국 청소년의 Bender-Gestalt test 성적에 관한 고찰, 신경정신의학, 3 : 4, 49-59, 1964.
  - 23) 나 철 : 한국 고교생에 관한 정신의학적 연구, 신경정신의학, 17 : 3, 271, 1978.
  - 24) 정범모 · 이정균 · 진위교 : 다면적인성검사, 7-20, 코리아테스팅센터, 1968.
  - 25) 전용신 · 서봉연 · 이창우 : KWIS 실시요강, 42-50, 중앙적성연구소, 1963.
  - 26) Schafer, R. : On the objective and subjective aspects of diagnostic testing, J. Consulting Psychology, 4-7, 12, 1948.
  - 27) Rapaport, O., Gill, M. and Schafer, K. : Diagnostic psychological testing, Vol. 1. 20-45, Chicago, Yearbook Publisher, 1946.
  - 28) 김중술 : 한국정상인의 Rorschach 반응, 임상심리학보, 26-29, 1, 1968.
  - 29) 이상근 · 변창진 · 김경린 : Rorschach 성격 연구, 35-164, 중앙적성연구소, 1973.
  - 30) Maslow, A. H., 이해성 역 : 존재의 심리학, 53-178,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81.
  - 31) Pierce, C. M : Psychiatry and Sports, in Kaplan, H. I., Freedman, A. M. and Sadock, B. J. : Comprehensive textbook of psychiatry Vol. 3, 3268-3273, Baltimore, Williams & Wilkins, 1980.
  - 32) Schecter, D. E. : Infant Development, in Arieti, S. (ed) American Handbook of psychiatry, Vol. 1, 264-283, New York, Basic Books 1974.
  - 33) Strachey, J. and Anna Freud (ed) : Sigmund Freud, 7-66, London, The Hogarth press, 1955.
  - 34) Whitman, R. M. : Sports and Psychiatry, in Wolman,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Psychiatry, Psychology, Psychoanalysis & Neurology, 431-435, New York, Aesculapius, 1977.
  - 35) Cox, F. D. : The concept of Normality, in Arieti, S. (ed), American Handbook of psychiatry, Vol. 1, 202-205, New York, Basic Book, 1974.

- 36) Erikson, E. H. : Identity ; Youth and Crisis, 28 -32, New York, Norton, 1968.
- 37) Toffler, A. : Future shock, 35 -39, New York, Random Mouse, 1971.
- 38) 한완상 : 현대 젊은이의 좌절과 열망, 26 -55, 배

- 영사, 1976.
- 39) Offer, D. and Sabshin, M. Normality in Kaplan, H. I., Freedman, A. M. and Sadock, B. J. (ed) : Comprehensive textbook of psychiatry 608, Baltimore, Williams & Wikins, 1980.
-